

Lim Ok-Sang

철기시대 이후를
생각한다



철기시대 이후를

생각한다

가나아트갤러리 기획초대전
임옥상 | Lim Ok-Sang

2002. 9. 25(수) - 10. 7(월)
인사아트센터 제3전시장 및 특별전시장
주최 | 가나아트갤러리 · 협찬 | (주)세브코리아

부서진 폭탄껍질의 실내악 – 임옥상 미술전 ‘철기시대 이후를 생각한다’에 부쳐

김정환 | 시인



내게 미술은 공간 속으로 공간을 심화하는, 즉 장르적 한계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한계 속으로 극복’ 하는, 그래서 매력적인 예술 장르다. 물론 모든 예술 장르가 그렇지만 미술은 연극·영화보다 가시적으로, 공간을 축적으로 그렇고 음악이 무엇보다 시간·응축적으로 그렇다. 남한의 80년대 예술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민중미술은 (전시) 공간과 정치적 영향력을 ‘공히’ 최대화하는 동시에 천박화했고, 그러므로 민중운동의 퇴조에 따른 공간과 정치적 영향력의 ‘격앙스러운’ 감소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얼마 동안 공간이 심화되지만, 동시에 추상·무조리화한다. 임옥상 미술은 ‘천박화’와 ‘추상화’ 경향 양자에 대한 강력한 ‘예술적’ 저항인 동시에, 당연히, ‘예술적이므로 정치적인’, 희귀한 경우다. 임옥상의 걸작들은 미술이 ‘공간 속으로 심화’ 하는 동시에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먼저 앞장서는, 서야 하는, 가장 광범하고 포괄적이며 근본적인, 그래서 예술적인 장르라는 점을 확인시켜준다. 그렇다. 그의 미술은 극좌 경향에 대한 반동으로 우경화 하는 ‘미술의 질병’을 치유해주는 것이다.

내가 보기에 임옥상 미술은 적절하게 그리고, 당연히, 고통스런 경로를 통해 ‘철기 시대’에 이르렀다. 사회의식 혹은 투쟁은 예술가의 미적 전망을 제한하고 형식/내용 균형을 손상시키고 ‘혁명-유토피아적’ 환영을 진부한 미학적 관습으로 복제, 자기 자신의 현실주의를 배반하기 십상이지만, 임옥상 미술은 다르다. 가장 ‘활동가적’ (그의 ‘운동’ 분야는 정말 폭넓어서, 환경에서 남북통일을 거쳐 궁극적인 세계평화 문제에까지 이른다.) ‘이면서 또한’ 남한의 가장 세련된 장면 중 하나로, 현장과 생짜로 부딪치는 육체의 팽팽한 근육이 어느새 저항정신과 해학, 그리고 조형미를 원숙하게 조화시킨 당대의 명품으로 전화되어있는 것이다. 그의 ‘땅’ 시대(보리밭 연작)는 여러 겹 갈등의 시대였다. 자연과 문명의, 고향과 전쟁 기억의, 불안과 충동의, 사실주의와 모더니즘의, 열망과 경악의, ‘원(原) 색·형태’와 ‘형태 우선적인 색’의 갈등. 그리고 그 갈등들은 (화해가 아니라) 죽음 웃음을 폭넓게 감당하는 오페라 부파(Buffa)의 미학으로 완숙해졌다. 그리고, 그렇게, 스테인레스와 고철 작품들에서 그는 더 ‘예술가적’이다. 그의 ‘포크와 나이프, 스푼’ 스테인레스 작품들은 인간 문명에 대한 ‘빛나는-토하는’ 비판(‘꽁치’)이며 ‘그리고 또한’ 예술=먹는 행위(‘매달린 물고기’)에 대한 철학적 해석이기도 하다.

술한 생선을 먹어 차운 포크와 나이프, 스푼들을 ‘소재 혹은 매질’로 한 미리 생선을 형상화한다는 것. 주체와 대상의 역전, 내용과 형식의 역전, 먹는 것과 먹힌 것의 역전, 먹는 문학의 예술화, 즉 예술의 화-초밥화가 아니라 화-초밥의

예술화, 혹은 그 둘 사이 절묘한 균형 혹은 역전. 지느러미를 이루는 나이프, 비늘과 눈을 이루는 숟가락, 그리고 고생대 동물을 연상시키는 포크 이빨.... 이쯤 되면 우리는 미술의 색깔과 형상으로 세계를 ‘우선’ 변혁하려는 예술가 정신의 치열한 내화가 마침내 대중문화, 아니 대중생활 문화, 아니 일상의 영역을 의미심장하게, 근본적으로 파먹어 들어가는 예술 장면에 달하게 된다. 반면, ‘큰 스푼’과 ‘포크’는 질적이 아니고 양적이다. 이것은 종이부조 종 (세한도)가 어느 정도 공간을 심화하는데 반해 9. 11 테러를 다룬 <아메리칸 드림>, II 가 ‘소재적 표면’에 머무는 것과 같다.

남한 매향리 공군 사격장에 흘어진 미 제국주의 폭탄 껍질 고철 조각들로 만든 ‘아메리카 남근(=폭탄 탄두)’ 연작들은 물론 미국의 고철 조각으로 미제의 야만과 참상을 드러내지만, 내가 보기에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절묘한 ‘흘어진 의 여백’이다. 남근(팔루스) 조각상의 역사는 호모사피엔스 출현 이래 10만년이 넘는다. 철기시대는 언제? 임옥상의 팔루스들은 인간 형체를 이루는 조각(piece)과 조각(sculpture) 사이 아릇한 공간으로 그 선사의 세월을 머금는다. 그리고 세월의 무게가 심오한 우스꽝스러움을 유발하면서 ‘반미(反美)’가 자칫 뜻할 수 있는 소재-주제주의를 문명비판의 차원으로, 그리고 인간실존의 부파 미학으로까지 끌어올린다. 이것은 아프리카의 토속성과 모더니티를 얼버무렸던 피카소와 사뭇 다른 방식이고, 보다 실천적이면서 미학적인 방식이다. 아, 정말 기묘한 15만년의 응축들. 그 응축이, 녹슨 고철이 발하는 전쟁 자체의 참혹한 헐벗음의 미학 자체를 유구한 희망과 전망력(展望力)의 형상으로 전화한다. 반면 스테인레스(스푼)와 고철(매향리 잔해물)을 합한 ‘철의 꿈’ 연작은, 과감하지만 과도적이고 아직 ‘절충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다. 물론 이런 방식으로도 그는 끝내 길을 열 것이지만.

그러나, 이번 전시회의 절정은 폭탄 껍질들을 주축으로 만든 식탁, 식탁 의자, 티테이블, 회의용 탁자와 의자 등 ‘최신식’ 가구들이다. 길게 반쪽 난 매향리 폭탄의 육중한 금속성이 예술가의 손길을 받아 세련되고 미려한 고전적 단아의, 목성(木性)을 발하고 급기야 검고, 검을수록 섹시한 고급 오디오 기기 ‘껍질’에 달하고(회의용 탁자), 옹근 박격포탄 껍질 4개가 여자의 날씬한 다리보다 앙증맞은 균형을 상단 유리 속으로 내비친다(티테이블). 그렇다. 공간·응축의 미술이, 놀랍게도 폭탄 껍질을 매개로, 시간·응축의 실내악에 달하는 순간이고, 폭탄의 자본주의를, 놀랍게도 폭탄껍질을 매개로, 예술의 사회주의로 유인해내는 광경이다. 위 과정을 질적으로 종합한 결과인 이 작품들로 하여 우리는 ‘총칼을 놓여 보습을 만들자’는 사회주의적 구호의 구호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

Chamber music of the shattered bombshells-To Lim Ok-Sang Art Exhibition 'After Iron-Age'

Kim Cheong-Whan | poet



It is fascinating to me because it deepens spaces 'into'(not out of) spaces, so overcomes its limits 'into'(not out of) limits. Of course all arts-genres are so because so but art is more sibly, space-condensingly so than theatre or cinema, and music is more time-condensing han other arts-genres. As one of the leading arts-movements of 1980's South-Korea, Minjung(or populist) Art Movement maximized but at the same time shalowed 'both' (exhibition)spaces 'and' political influence and, was to suffer the 'astonished' contraction of both after the retrogression of Minjung Movement in general. And, for the time being, spaces are deepening but abstractive and absurdist. Artist Lim's works are 'artistic' esistance against these two tendencies and at the same time, deserved, but rare case of 'political because artistic'. Lim's masterpieces confirms art as 'both' into-space deepening 'and' most extensive, comprehensive, fundamental avant-garde world-reforming, therefore 'artistic' genre. Yes. His works heal 'art-disease' of turn rightist against extreme leftist.

Methinks Lim's painting & sculpture art has arrived 'age of iron', appropriately and, of course, by the painful road. In most case social consciousness or struggle limits artists aesthetic vision and damages form/content balance and falls into revolutionist-utopian illusion of hackneyed conventionality, betraying realism of his own. Lim's art is not the case. He is most activist(his concern is wide, from environmental over unification of south/north Korea to ultimate World Peace) 'and also' one of the finest artist of South Korea. His artworks are made in the scene of action but, instead of ending as performance or stiffening into dead still-life, metamorphoses struggles muscle into flexible, humorous, formal-beauty text of modern classic. His 'earth' age(Barley Field series) was that of multiple conflicts, between nature and civilization, heimat and war memory, anxiety and impulse, realist and modernist, yearning and consternation, 'primary colour-form' and 'form-primary colour' and that conflicts matured into (not reconcilement) deep, wide coverage of death-laughter, aesthetics of Opera Buffa. Then, so, he is more of 'artist' in creating stainless and old iron work. His 'forks and knife, spoon' stainless works are shining-vomitting criticism of human culture(mackerel) 'and also' philosophical interpretation of art=eating('a hanged fish').

Forks and knives, and spoons that have forked, knifed, and spooned so many fishes makes up a fish. Reversal of eaten and eating, subject and object, content and form. 'Artization' of eating culture, not 'sushization' of art but artization of sushi or exquisite balance/reversal between two. Fin-knives, scale-spoon-eyes, and paleozoic creature's teeth-forks. We are witnessing innermost spirit of avant-

garde artist who priorily reforms world with colours and (content-overcoming)forms at last forking, knifing, spooning mass culture, mass life, everydayness of everyday meaningfully and fundamentally. On the other hand, 'Big spoon' and 'Fork' are not qualitative, only quantitative. The same case occurs in paper-relief works. 'Sehando' more or less deepens (into) space, but 'American dream' I, II about 9. 11 terror remain on 'material surface'.

'American Phallus(=warhead)' series are made of junks of U. S. imperialism bomb-shells scattered in South Korea Mae-Hyang-Ree air-force rifle range. These sculptures of junk pieces of course muckrake barbaric disaster caused by U. S. imperialism. But, methinks, more important aspect is a kind of, exquisite margin of scatteredness. (Pre-)History of phallus sculpture covers more than one hundred-thousand years. And age of iron? Lim's Phallus series entertain prehistory time and tide in those queer space between 'pieces' and 'sculpture' that make up human figure. And depth & gravity-weight of that prehistory time & tide induces profound buffoonery that raises anti-USA subject to dimension of culture criticism, and higher to Buffa-Aesthetics of human existence. This method is different from that of Picasso, who confused and compromised african localities and modernity. Lim's way is more praxis-orthodox, and more aesthetic. O, really curious condensations of 150, 000 years. That condensation transforms wretched-ragged aesthetics of war itself into forms of everlasting hope and vision-power. On the other hand, 'Dream of iron' series are, as stainless(spoons) 'plus' junks(Mae-Hyang-Ree remains), bold but transitional, and remain eclectic. Of course he will open his road even this way but.

However, climaxes of this exhibition are bombshells composing cores of 'ultra-modern' furniture of 'eating' table and chairs, tea-table, meeting table and chairs, etc. Heavy 'metallic' of long halves of a air-to-earth missile warhead emanate through warm hands of an artist refined, magnificent and graceful, elegant 'woodness' of classic, and in the end attain 'more black, sexy' of the highest audio equipment - 'shells'(meeting table), balance of four unbroken mortar shells seen below glass-sheet are cute, prettier than sheen-slender legs of women. Yes. At this moment, surprisingly through bombshells, space-condensing art attains time-condensing chamber music, and at this spectacles, surprisingly through bombshells, capitalism of bombs is attracted into socialism of art. With this chamber music of bombshells as qualitative synthesis-result of above-mentioned processes, we can overcome sloganism of socialist slogan 'Melt swords and guns into plowshares'.



3. 큰 스푼 스푼, 종정비 기어 | 높이 267cm, 스푼 지름 75cm |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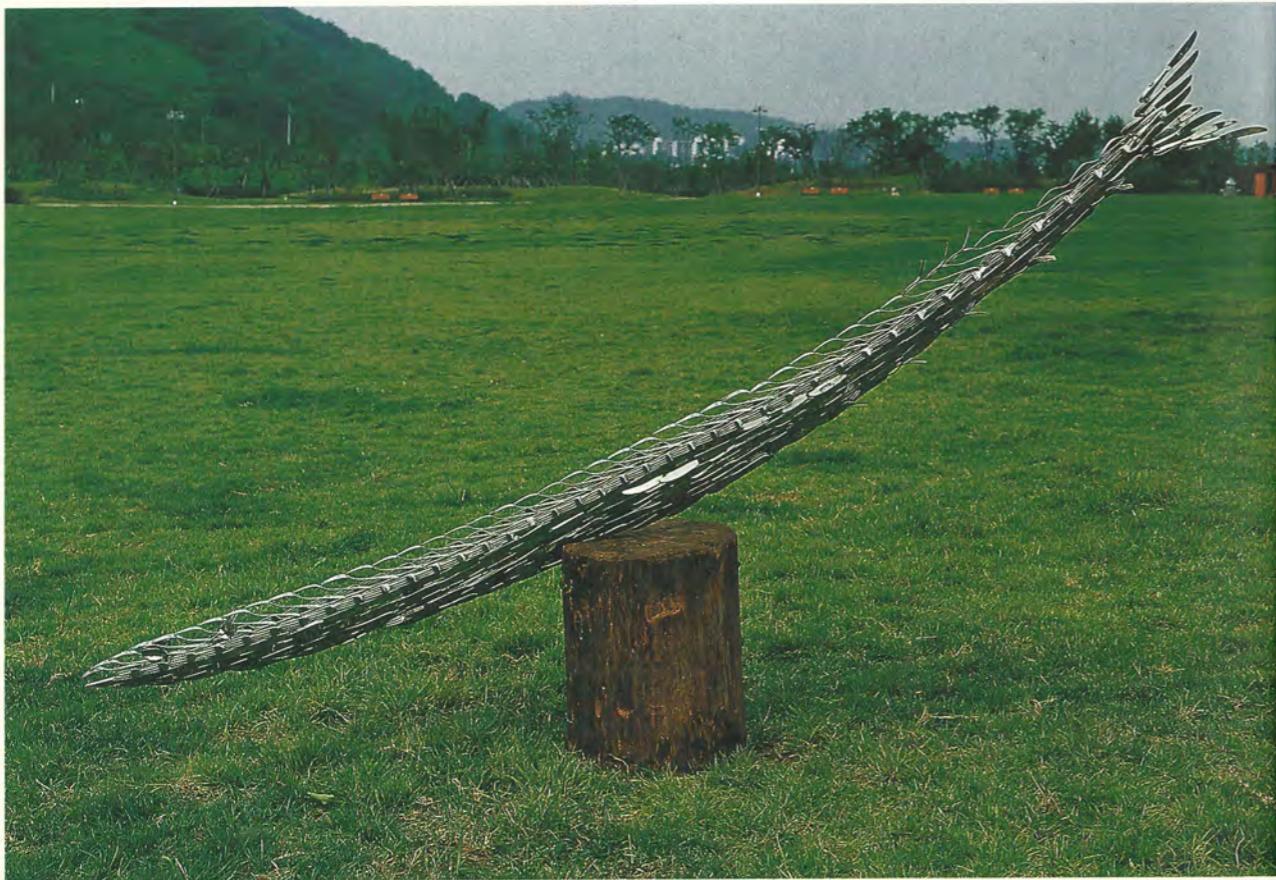
비정역사리, 기지초

(나들금과)

우리나라를 지혜롭게 향유하는 기지초에 다른 이름이.
종득초. 드리풀. 깔풀. 나들금과. 주들금과. 기지초이 있으
니 대개의 깔풀은 새비 양락의 기지초이 있으, 또 대개의
비정역의 깔풀은 푸른색장 기지초이 있으. 용사는 바군기지
주변을 둘러는 깔풀은 없이 12경동과 66구장은 사설
마저도 둘러 기지초이며, 넓은 들판이.
여기서 블랙에 가까워 놀라운 '대한민국' 지혜가
비정역이운 박죽의 천진기지, 유희과. 깔풀이운
비서-비기재를 끌어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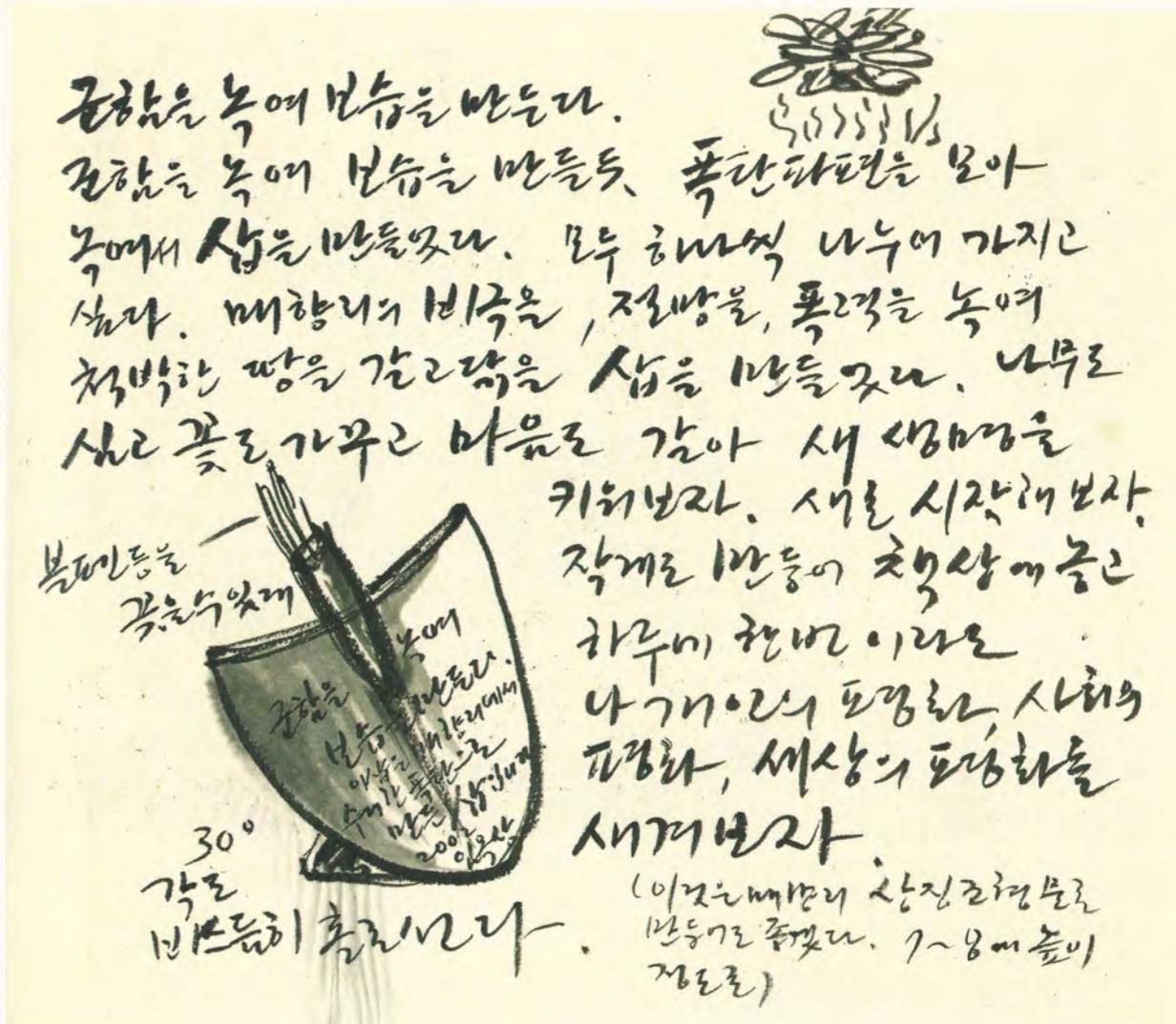
대한민국은 한 사람의 날개를 달고
나비기재의 비상하듯, 궁호의
진로방, 바울의 천진한양을 걸어
자유의 기도비를 만들자.
설생의 암수로 혼생을 살피고
폭관을 놓아 새 암수를 주자.
대통사리의 일원인 자작증을 주자.
세사생을 주자. 윤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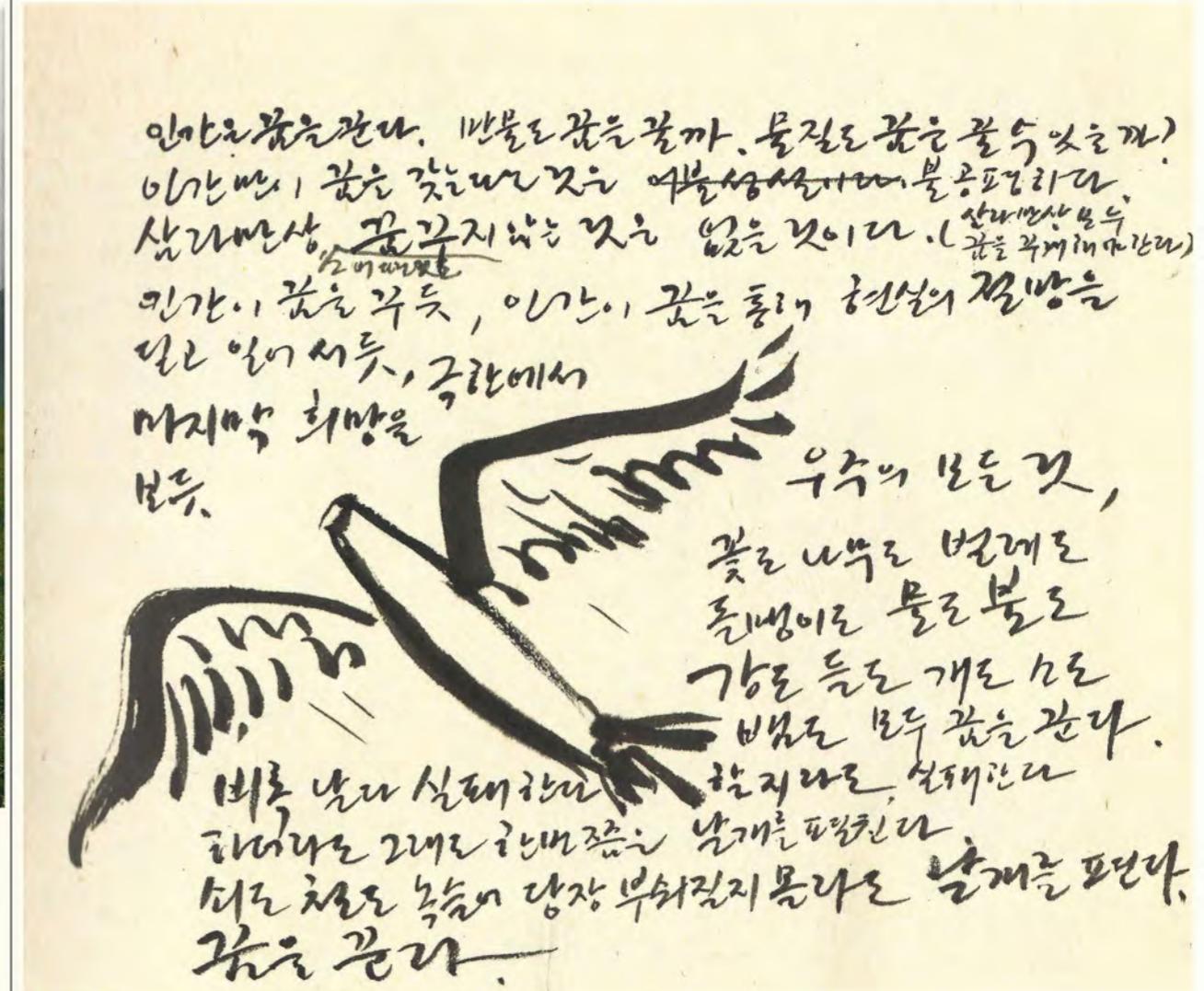




4. 꼬치 스플, 포크, 나이프 | 340 x 15 x 25cm | 2001

5. 매달린 물고기 스플, 포크, 나이프 | 230 x 50 x 100cm | 2001





6. 철의 꿈 IV 매항리 폭탄 잔해물, 스푼, 포크, 나이프 | 높이 120cm, 가로 210cm, 세로 315cm | 2001

“군화를 놓여 네들을 만든다”

무기를 가지고 농기구를 만드니라. 축복! 빛지라.

매우나 대중은 폭력에 드물게 하루에도 수백명을 죽이거나 폭력을 향해 살인흉기를 농기구로 변신 시킨다.

The great American phallus의
제작은 2차전의 상징성으로
충분한 의미를 찾는다.



Great
American
phallus

1970년 작품

(Tom Wesselmann)
The great American Nudes의 파편



1970년 작품
작품

폭력의 현대화까지는 즉물성과 기호성을 극대화한다.
제작 제목은 The Great phallus로 흔들린다.



• 폭력을 지지하는 작품이라는 고찰

고물(古物) 이미 한 놀을 살고 라는 삶을
기억해 조용히. 이동과 저승 사이 즉
바로로에 있는 것. 자동차, 중장비 및 고물상에서
고물은



7. 칠의 꿈 Ⅱ 고철, 스푼, 나이프 | 높이 170cm, 날개 길이 220cm | 2001
8. 칠의 꿈 Ⅰ 고철, 스푼, 나이프 | 높이 130cm, 날개 길이 230cm | 2001

폭관파페온 고철이라는 이름인지,
폭관족 무기는 여기 가장 무거운 것 같았지.
이를 그 반대편의 껌으로.
전체 → 폭관

폭관 → 사방
중원 → 화해
파리 → 복관
죽음 → 살관

마애불리에서
개별의 발자국을 더 바로되도록
포함을 찾아주었지. 놀랄 뿐이 본래의 철의
모습을 찾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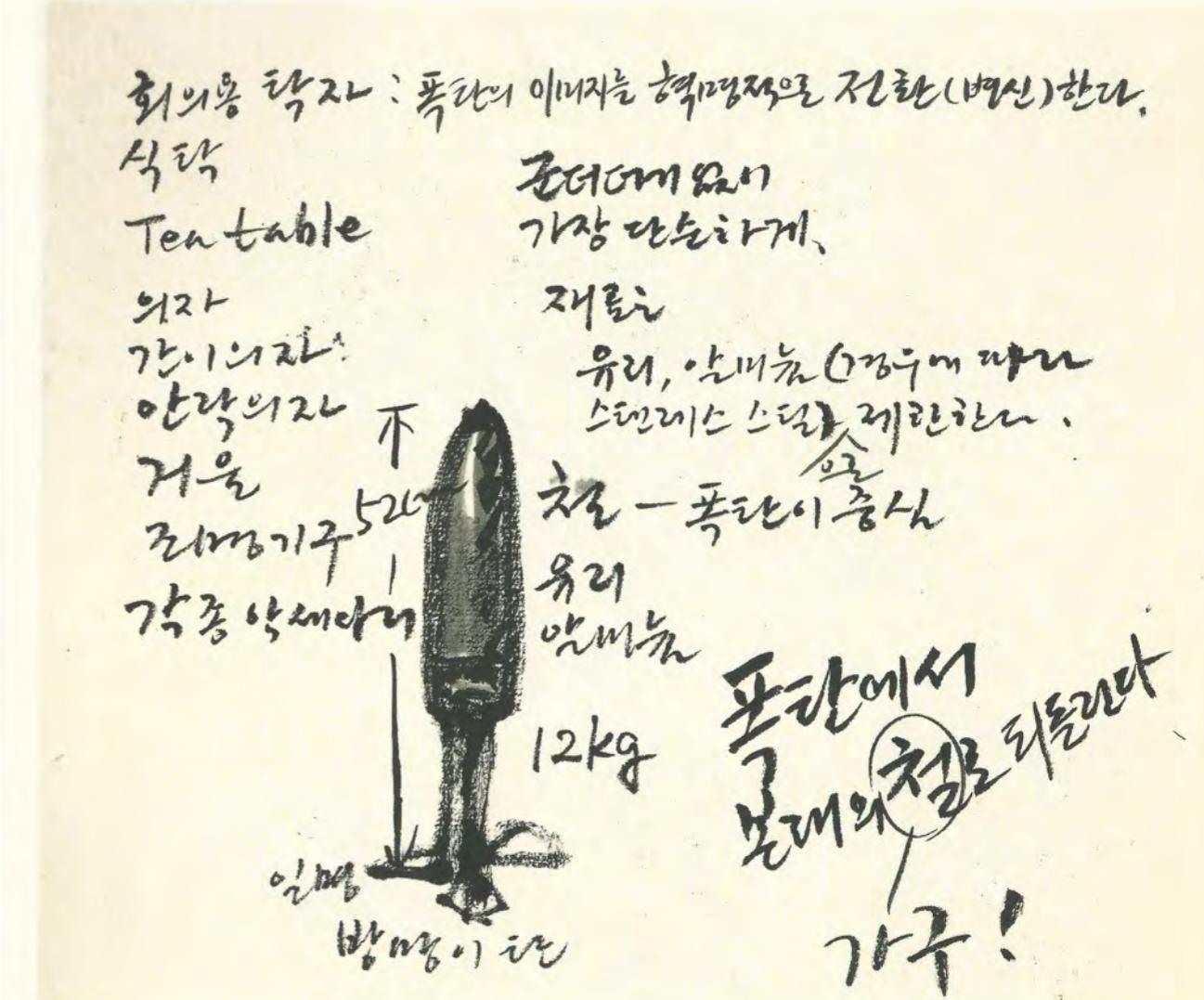
본래 3,000 톤이었는데 놓쳤을 때 2,000톤이 날라갔지
1000톤만 남아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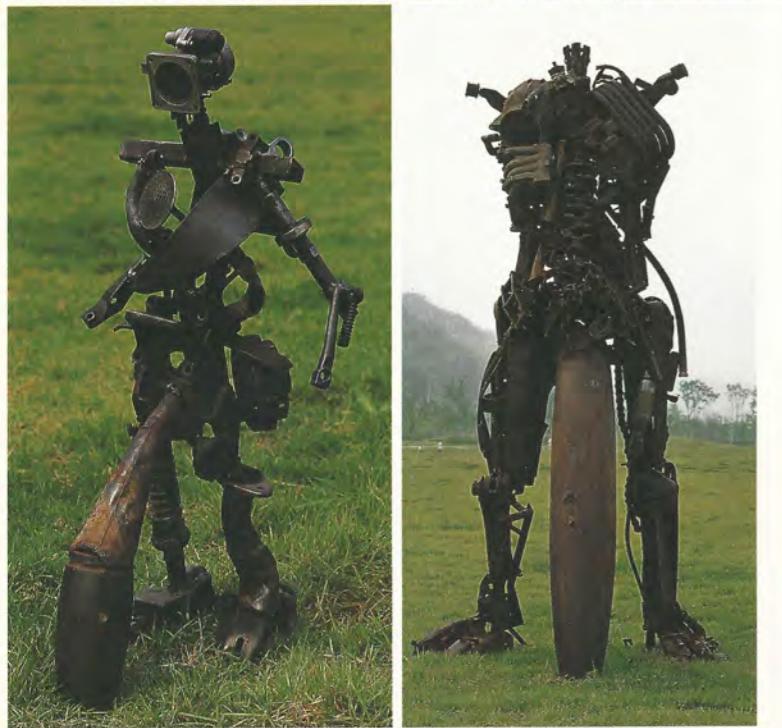
포함은 자작으로 깔려온다.





9. The Great American Phallus | 매형리 폭탄 잔해물 | 높이 88cm, 정면폭 37cm |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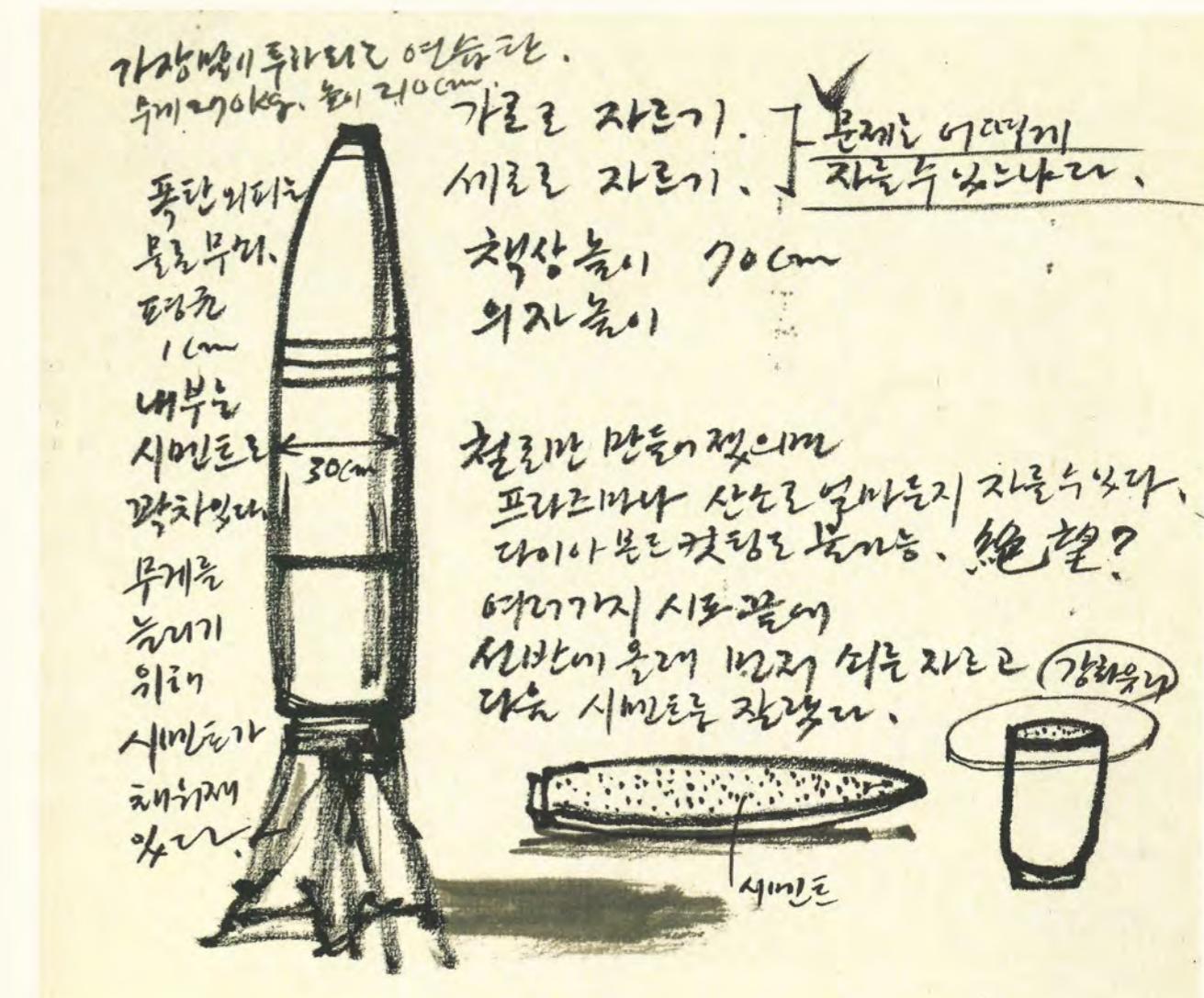




10. The Great American Phallus Ⅱ | 매항리 폭탄 잔해물 | 높이 88cm, 정면폭 37cm | 2001

11. The Great American Phallus Ⅲ | 매항리 폭탄 잔해물 | 높이 88cm, 정면폭 37cm | 2001

12. The Great American Phallus Ⅳ | 매항리 폭탄 잔해물 | 높이 300cm, 측면폭 100cm, 정면폭 150cm |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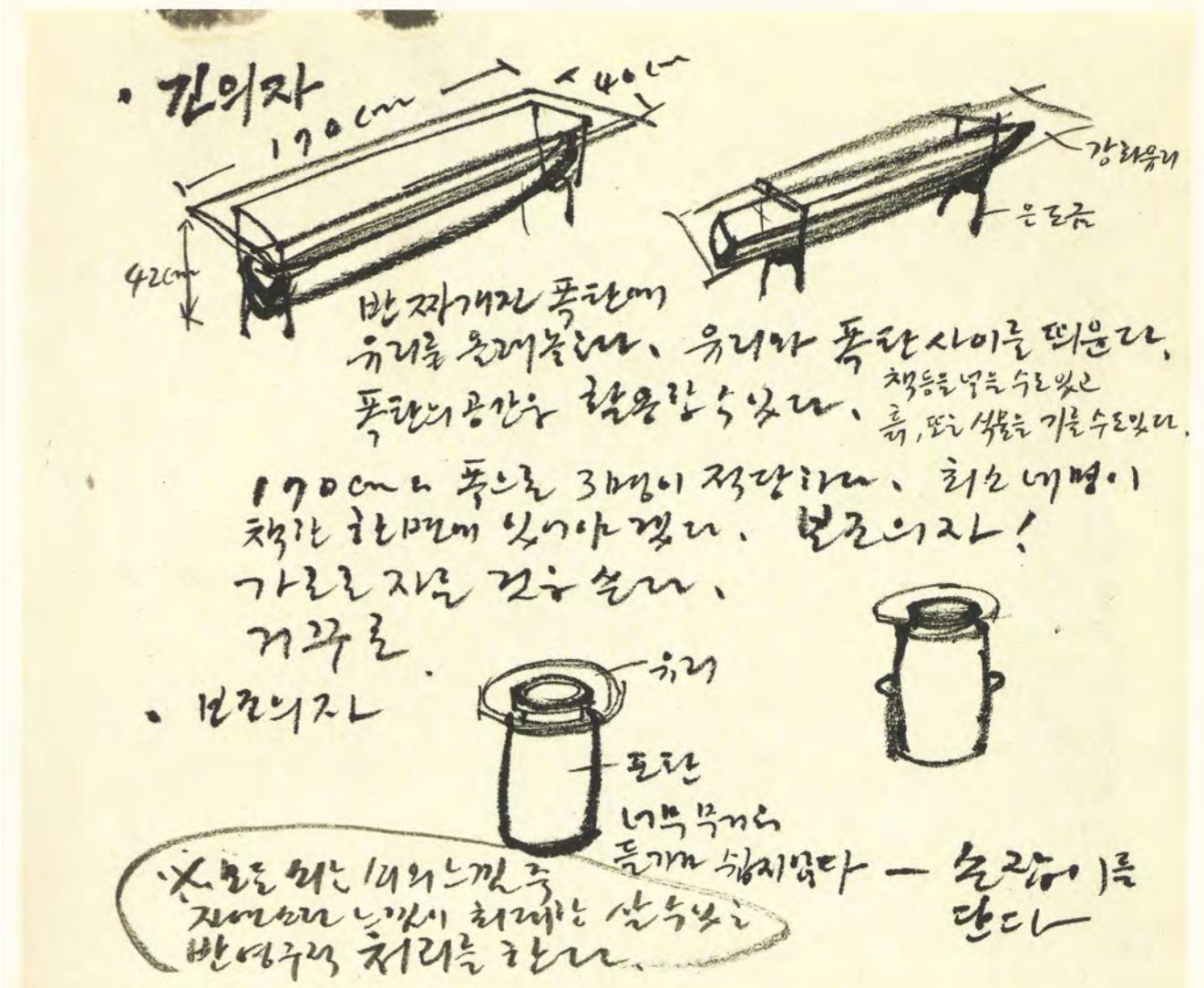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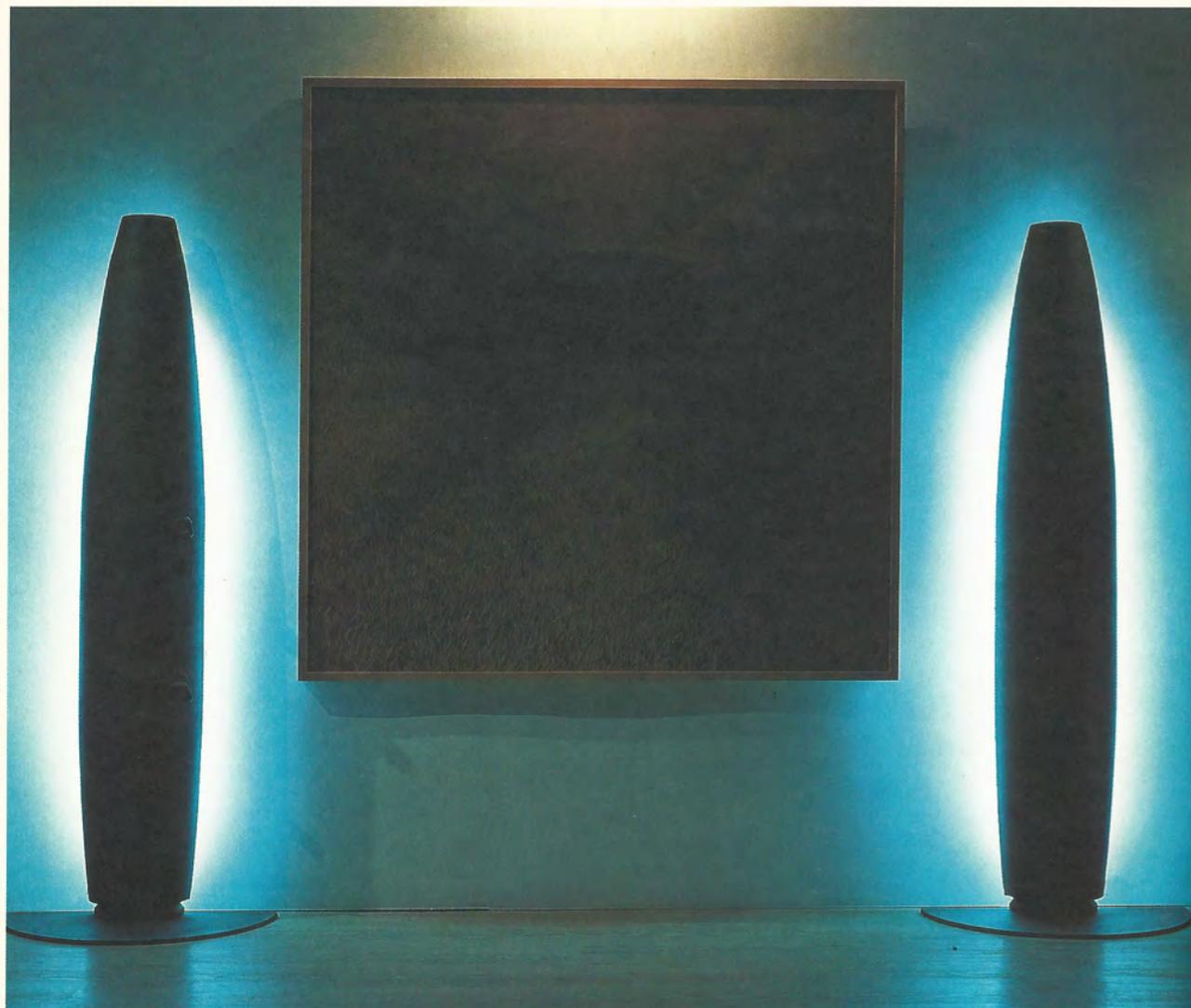


15. 회의용 탁자 매향리 폭탄 잔해물, 알루미늄, 강철, 유리 | 높이 70cm, 가로 90cm, 세로 210cm |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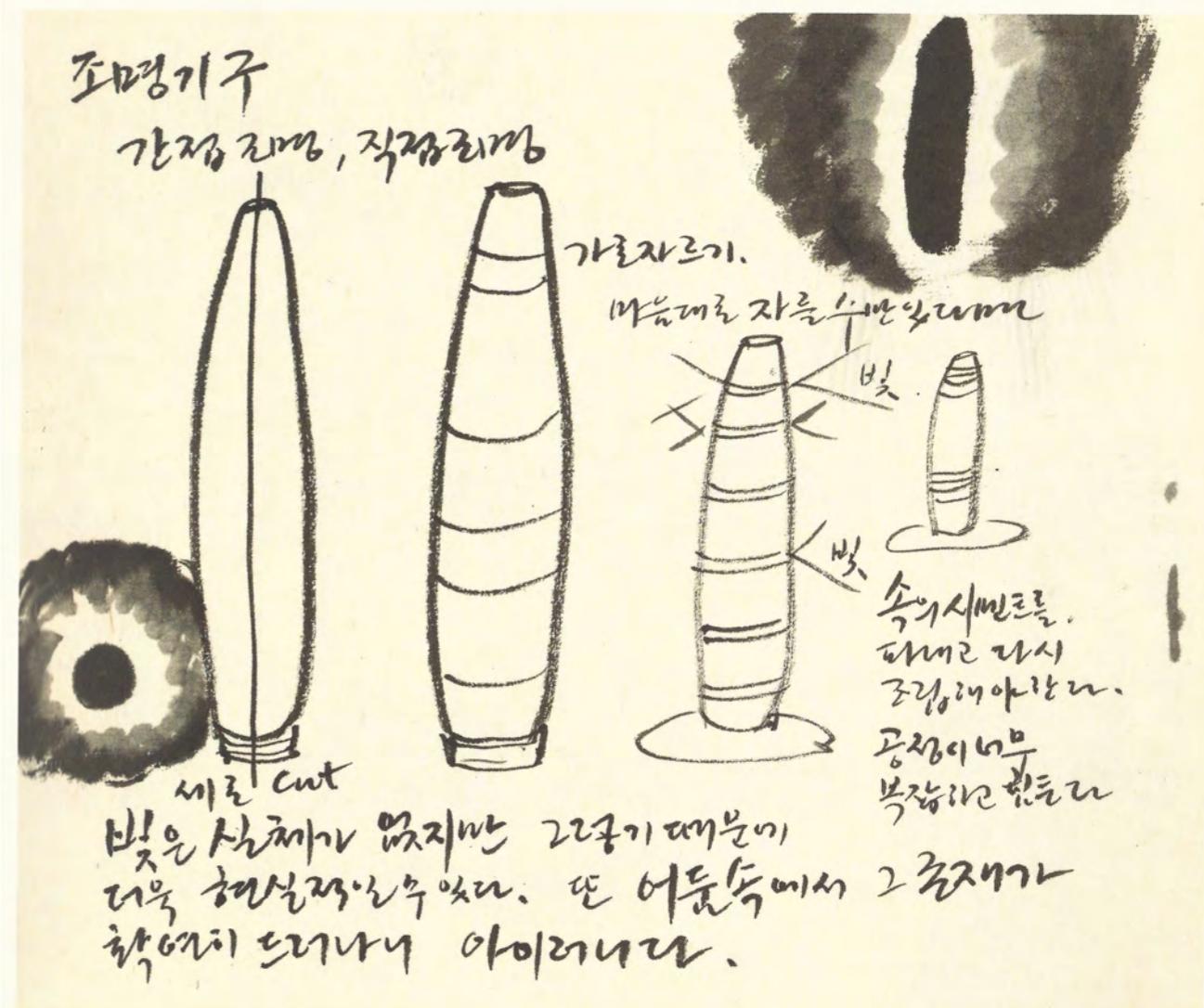
회의용 의자 매향리 폭탄 잔해물, 알루미늄, 강철, 유리 | 높이 45cm, 가로 35.5cm, 세로 16.9cm |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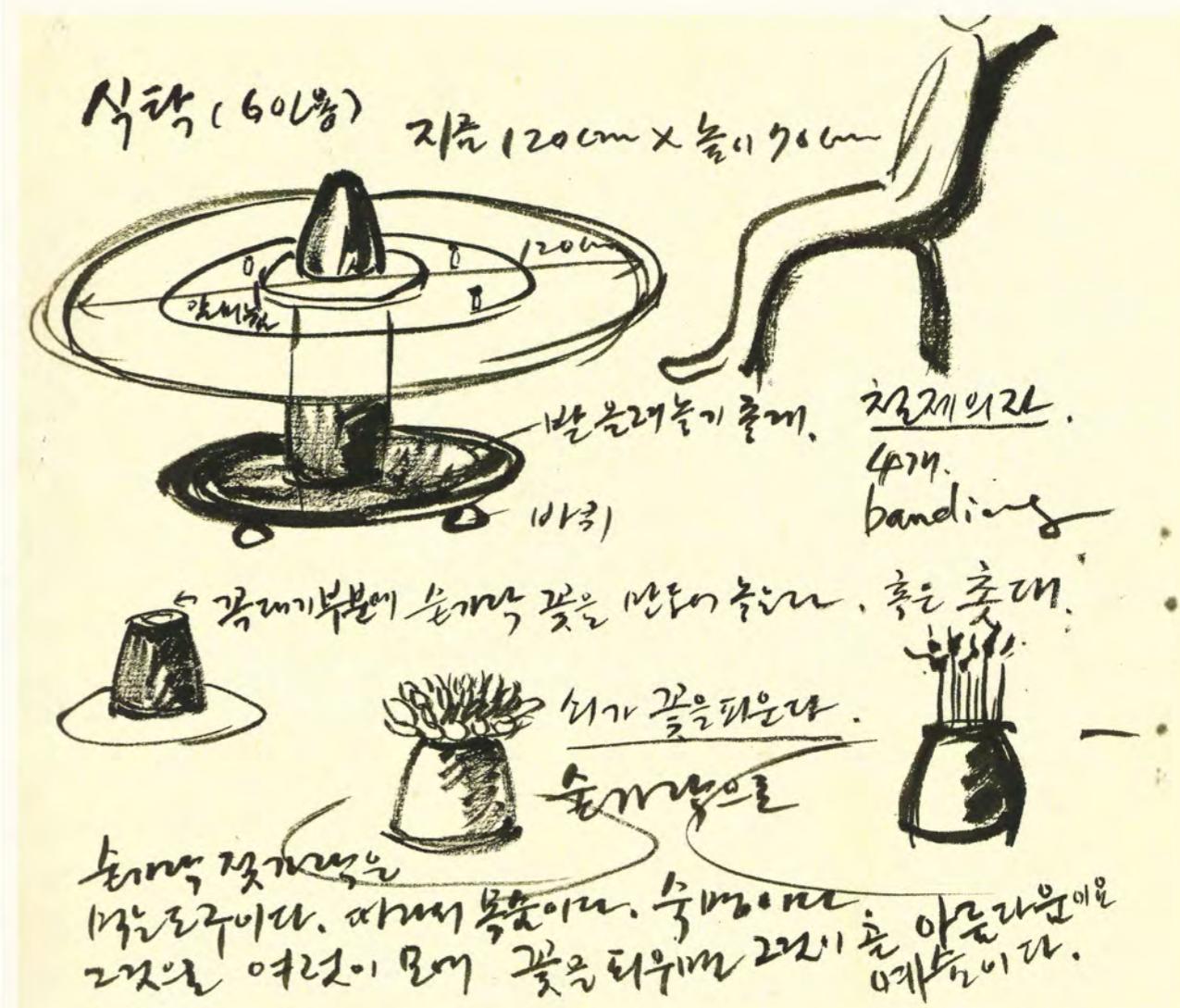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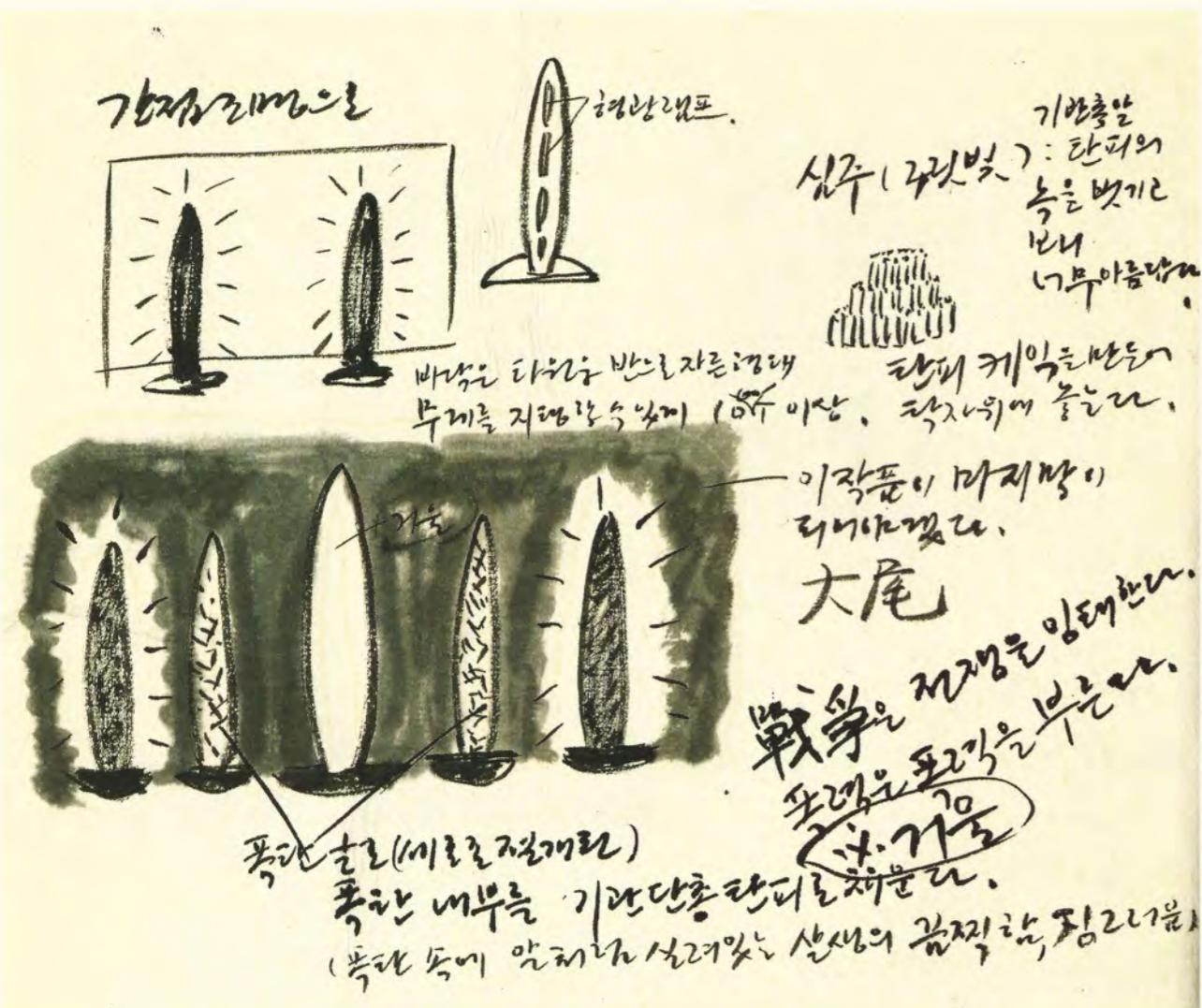
보조의자 매향리 폭탄 잔해물, 유리 | 높이 42.5cm, 지름 28.5cm |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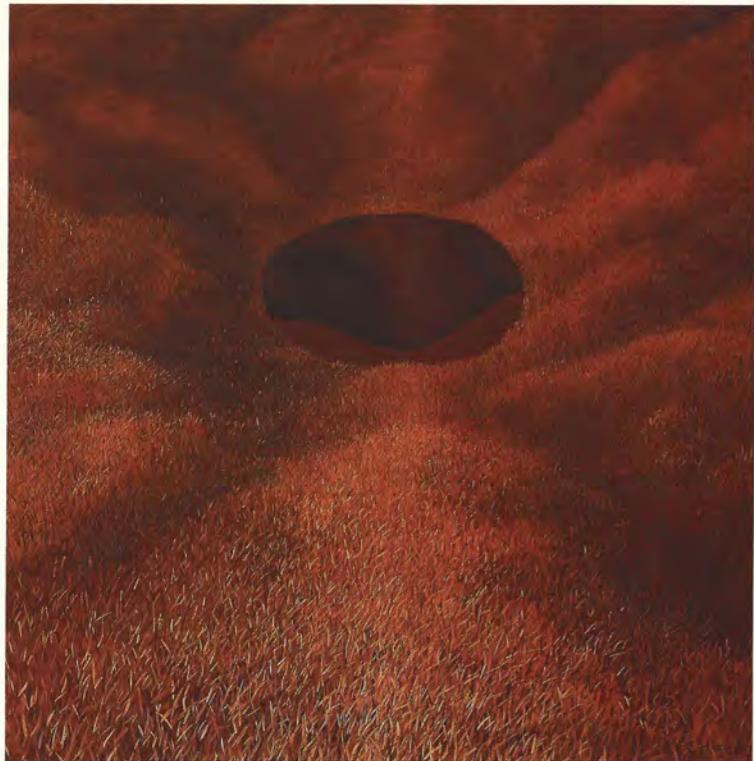




16. 조명 매항리 폭탄 잔해물 | 높이 155cm, 지름 27cm |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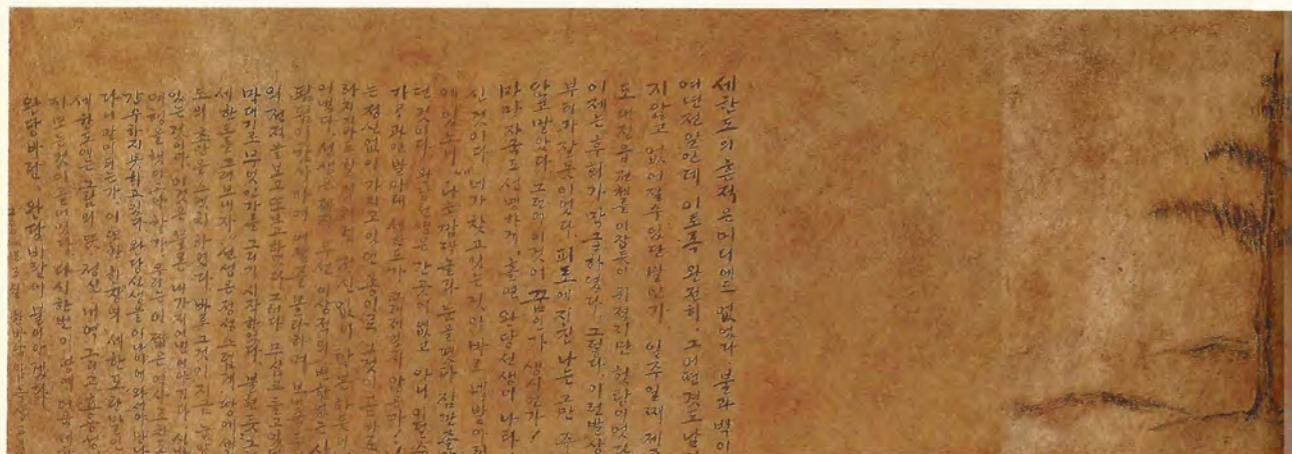




17. 오름 I 캔버스에 아크릴 | 130×130cm | 2002



18. 오름 II 캔버스에 아크릴 | 160×95cm |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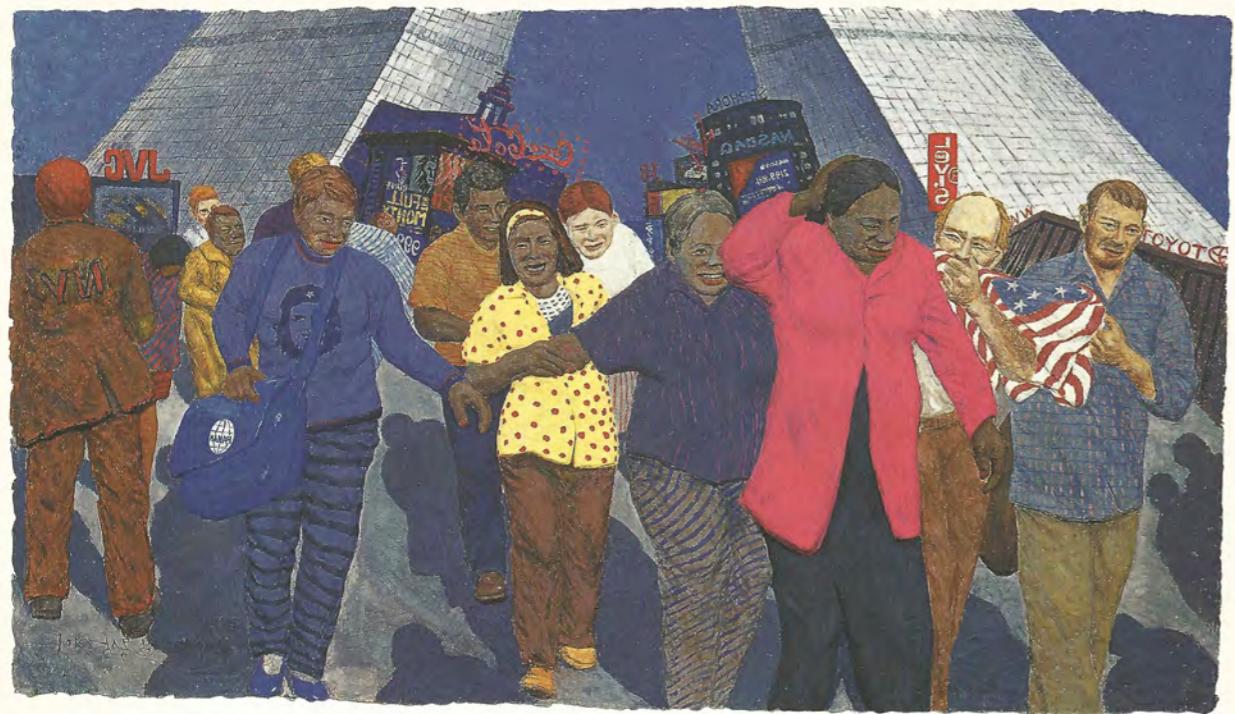


19. 세한도 종이 부조 | 270×100cm |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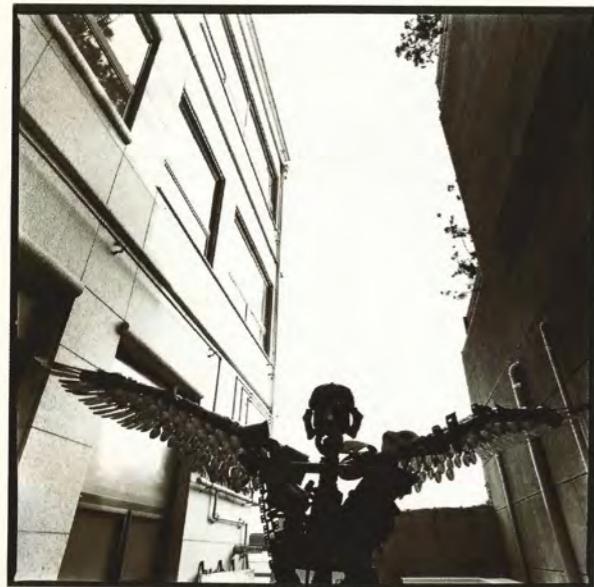
20. 추사 김정희 죽이 부조 | 78×80cm | 2002





21. American dream I 종이 부조 | 237×136cm | 2002
22. American dream II 종이 부조 | 237×136cm | 2002





임옥상 | Lim Ok-Sang

1950년 충남 부여에서 출생, 서울대학교와 동대학원 및 프랑스 앙굴렘 미술학교를 졸업하였다. 광주교육대학과 전주대학에서 재직했으며, 1993년부터 1994년까지 민족미술협의회 대표를 역임했다.

『십이월전』, 『제3그룹전』, 『현실과 밝은 동인전』 등에 출품하였고, 1989년 Forum (독일 함부르크), 1993년 퀸즈랜드 트리엔날레(오스트레일리아), 1995년 베니스 비엔날레의 호랑이의 꼬리전, 한국현대미술(중국 심양 노신미술관), 1997년 광주 비엔날레의 통일전에도 참가하였다. 1981년 첫 개인전(미술회관)을 시작으로 1988년 「아프리카현대사」(가나화랑), 1991년 「임옥상 회화 초대전」(호암갤러리), 1995년 「일어서는 땅」(가나화랑), 1997년 「저항의 정신」(뉴욕 얼터너티브 미술관), 2000년 「철의 시대 · 흙의 정신」(가나화랑) 등 총 12회의 개인전을 가졌다.

광화문 지하철, 생산기술연구원, 정신대 역사관, 담배인삼공사, 전남 영암 구림마을, 경기도 화성 매향리, 수원 월드컵 경기장 등에 공공 미술을 설치하였고, 1999년 이후 인사동과 여의도 공원 등지에서 대중미술 프로그램 <당신도 예술가>를 매주 일요일 실시해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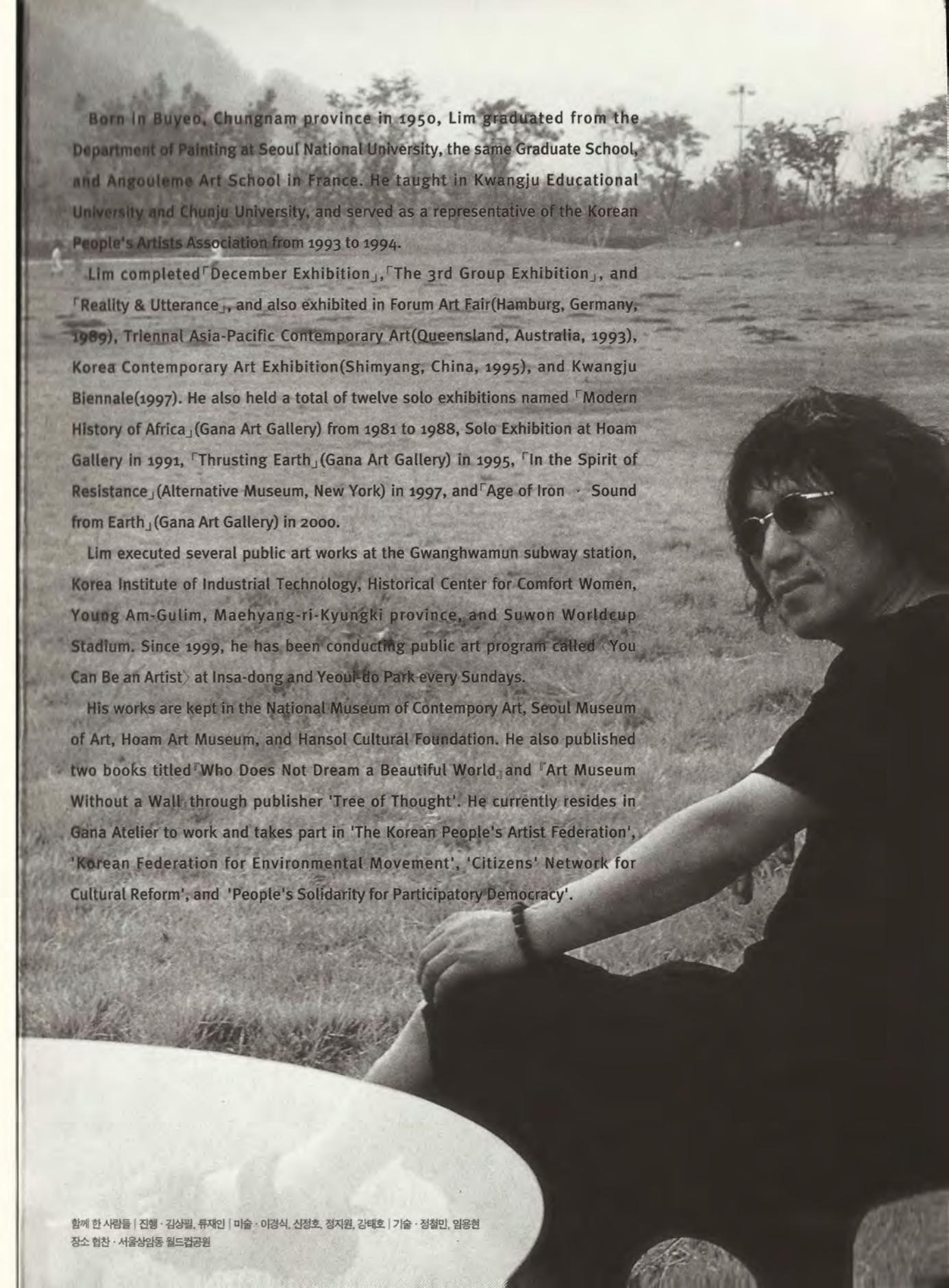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호암미술관, 한솔미술관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으며, 『누가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지 않으랴』와 『벽없는 미술관』 등 2권의 저서를 도서출판 '생각의 나무'에서 펴냈다. 현재 가나 아뜰리에에 입주하여 작업을 하고 있으며, 민족예술인총연합, '환경운동연합', '문화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Born in Buyeo, Chungnam province in 1950, Lim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Painting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same Graduate School, and Angouleme Art School in France. He taught in Kwangju Educational University and Chunju University, and served as a representative of the Korean People's Artists Association from 1993 to 1994.

Lim completed 「December Exhibition」, 「The 3rd Group Exhibition」, and 「Reality & Utterance」, and also exhibited in Forum Art Fair(Hamburg, Germany, 1989), Triennial Asia-Pacific Contemporary Art(Queensland, Australia, 1993), Korea Contemporary Art Exhibition(Shimyang, China, 1995), and Kwangju Biennale(1997). He also held a total of twelve solo exhibitions named 「Modern History of Africa」(Gana Art Gallery) from 1981 to 1988, Solo Exhibition at Hoam Gallery in 1991, 「Thrusting Earth」(Gana Art Gallery) in 1995, 「In the Spirit of Resistance」(Alternative Museum, New York) in 1997, and 「Age of Iron · Sound from Earth」(Gana Art Gallery) in 2000.

Lim executed several public art works at the Gwanghwamun subway station,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Historical Center for Comfort Women, Young Am-Gulim, Maehyang-ri-Kyungki province, and Suwon Worldcup Stadium. Since 1999, he has been conducting public art program called <You Can Be an Artist> at Insa-dong and Yeoui-do Park every Sundays.

His works are kept in the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Seoul Museum of Art, Hoam Art Museum, and Hansol Cultural Foundation. He also published two books titled 『Who Does Not Dream a Beautiful World』 and 『Art Museum Without a Wall』 through publisher 'Tree of Thought'. He currently resides in Gana Atelier to work and takes part in 'The Korean People's Artist Federation',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Citizens' Network for Cultural Reform', and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INSA art center

인사아트센터 서울시 종로구 편출동 188 Tel.02.736.1020 Fax.730-0466 www.ganaartgallery.com